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1.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1)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오. (300~400자, 15점)
- (2) “나는 디오도토스와 다른 이유에서 그의 결론에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문을 작성하시오. (700~800자, 30점)

<제시문의 배경>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패권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 초기에 미틸레네는 아테네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아테네는 미틸레네를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아테네의 민회는 미틸레네의 성인 남성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민회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었고,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연설하였다.

(가) 클레온: 가장 위험한 일은 결정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지만 구속력이 없을 때보다 나쁜 법일지라도 반드시 지킬 때 국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나는 미틸레네 인들에 대한 처분을 재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는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만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의를 당한 자의 분노는 무더지게 마련입니다. 불의를 당했을 때 바로 응징해야 가장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어떤 도시가 여러분의 지배를 참을 수 없어서, 또는 적의 사주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틸레네 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독자적인 정부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억압받은 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음모요, 폭동입니다. 우리의 숙적과 결탁해서 우리를 멸하려 했으니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동맹국과 적의 강요에 못 이겨 반란을 일으킨 동맹국에 같은 벌을 내린다면, 반란에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길 테니 동맹국들은 틀림없이 반란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과 목숨을 걸고 모든 도시와 맞서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긴다 해도 파괴된 도시만 남아 우리 힘의 원천인 세수(稅收)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면 다른 동맹국들도 새로운 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라는 이유로 미틸레네 인들이 그럴듯한 변명이나 공물로써 용서를 받아 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반란에 대해 민중은 제외한 채 과두정 지지자들만 처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틸레네의 모든 시민이 여러분에게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틸레네를 공격하려 했을 때 민중은 일단 우리를 믿고 도시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두정 지지자들의 편에 서는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동맹 이탈에 가담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제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 가지 우(愚)를 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세 가지란 온정을 베푸는 것, 감언이설에 현혹되는 것, 선부르게 정상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푸는 것이 적절하지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결코 온정을 베풀지 않을 영원한 적들에게는 온정을 베푸는 것이 적절치 못합니다. 연설가들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도시는 말의 향연을 잠시 즐기고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참작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의 적이 될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친구가 될 사람들의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조언을 따른다면 미틸레네 인들에 대해 정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반란이 정당하다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배는 부당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국으로서의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원칙대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제국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에서 도덕군자연하고 지내면 됩니다.

(나) 디오도토스: 분노와 졸속은 현명한 결정의 장애물입니다. 분노에는 어리석음이 수반되기 쉽고 졸속에는 무지와 경솔한 판단이 수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미틸레네 인들이 불의한 짓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유익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용서받을 만하다 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용서하자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보다 미래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클레온은 미틸레네의 민중까지 모두 처형하는 것이 다른 도시들의 반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장차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 역시 우리 장래의 안전에 관심이 많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새로운 처벌을 끊임없이 추가하며 갖은 방법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전에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 만큼 엄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죄가 계속되자 세월이 흐르며 사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의 효과를 과신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속히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반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계속 공물을 바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세워 항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처벌로 인해 일찍 항복하건 나중에 항복하건 어차피 마찬가지로 된다면, 끝까지 저항하지 않을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막대한 전비를 들여 도시를 함락해도, 결국 폐허만 남아 앞으로 그곳에서 공물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면 어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공물이야말로 우리가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중한 심판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처벌로써 배상금과 공물을 바치게 하여 우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훌륭한 통치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엄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도 되도록 소수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동맹국의 민중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들은 과두정 지지자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설사 어쩔 수 없이 반란에 가담하더라도 곧 내부에서 반란파의 적이 됩니다. 이는 반도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적의 도시 내에 많은 동지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미틸레네의 민중은 전쟁 초반에 과두정 지지자 편에 섰지만, 반란 모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이후 과두정 지지자들이 중무기를 주었을 때 우리와 싸우기를 거부함으로써 도시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이들까지 죽인다면 여러분은 동지를 죽이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제안이 더 나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제시한 논거에 따라 판단하기 바랍니다. 내 제안은 우리의 장래에 유익하고 우리의 적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의 적에 대해 현명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힘과 어리석음으로 적을 공격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2.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보기>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200~1,400자, 55점)

※ 조건: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보 기>

수도권에 위치한 A시에는 1970년대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되었다. 처음에 이 단지에는 중산층이 주로 살았으나, 건물이 노후해짐에 따라 점차 저소득층과 주변 영세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A시 시장은 도시 장기 발전 구상에 따라 최근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 단지와 연구 단지를 유치했고, 이에 따라 도시를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장은 국내외 고급 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후한 주거 단지 부근의 시유지(市有地)를 개발하여 산업 단지의 근로자와 연구 단지의 연구원들을 위한 주거 및 편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이 도시 장기 발전 구상이 기존 거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가) 도시는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집중·전달하여 부(富)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역사적으로 도시들은 창조성을 유지하며 번성하기도 했고, 창조성을 잃고 쇠락하기도 했다. 번성과 쇠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도시 내에 창조성을 발휘하는 창조 계급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창조 계급은 권력이나 부의 소유에 의존하는 전형적 엘리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조성은 권력이나 부와 달리 상속되거나 독점되지 않는다. 창조성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특성으로, 불평등과 특권을 발생시키기보다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창조 계급이 충분하게 존재하는 도시가 창조 도시이다. 창조 계급은 좋은 일자리가 많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개방적이며,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모인다. 창조 계급은 개체성, 실력주의, 개방성 등의 특징을 공유한다. 개체성이란 조직과 제도에 순응하기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이며, 실력주의는 도전을 즐기고 목표 지향적이며 성공을 추구하는 속성이다. 개방성은 인종, 민족, 외모, 성 등에 근거한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성향이다.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의 3T가 필수적이다. 특히 관용은 다양한 생각과 기술을 지닌 창조 계급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촉발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관용은 창조 도시의 핵심 요인이 된다. 다국적,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의 창조 계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예에서 뚜렷하게 증명된다. 인재가 많은 도시일수록 기술 수준이 높고, 그에 비례해서 소득 수준도 높다. 또한 기술과 소득 수준은 관용의 정도가 큰 도시일수록 높다.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와 같은 도시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과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고의 창조적 인재를 유인할 정도로 관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들은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메카이기는 해도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가장 성공적인 창조 도시들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D.C., 오스틴, 시애틀 등인데, 이들은 모두 3T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도시들이다.

(나) 도시는 잉여 자본의 축적과 함께 탄생하고 잉여 자본을 흡수하며 성장한다. 현대 사회에서 잉여 자본의 대부분은 도시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그중 일부는 도시의 재편에 투입된다. 이러한 재편은 필연적으로 기존 도시의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주로 노동 계급, 빈곤층 등의 정치적 소외 계층에게 돌아간다.

도시의 재편은 최근 30여 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경향 아래에서 가속화되었다. 만일 도시의 잉여 자본 흡수에 바탕을 둔 개발 정책이 한계에 이르면 금융·재정 분야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잉여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고, 그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창조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도시에 대한 통제권은 점점 더 사적인 이익 주체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뉴욕 시에서는 억만장자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개발업자, 월스트리트, 초국적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시를 재편하면서 도시를 고부가 가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 이제 맨해튼은 부유층을 위한 장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도 대부호 카를로스 슬림이 관광객의 시선에 맞추어 도심의 거리들을 재편하고 있다. 부유한 개인들만 도시 재편 과정에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뉴헤이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이 대학의 수요에 맞춰 도시 구조를 바꾸고 있다.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역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도시 재편을 둘러싸고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고조되고 있는 소외 계층의 불만은 다양한 도시 사회 운동으로 나타난다. 무허가 정착촌 주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주거권을 인정한 브라질의 도시법 제정 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 사회 운동은 금융 자본, 산업 자본, 기업 마인드를 갖춘 지방 정부의 후원을 받는 개발업자들이 추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도시의 혁신을 추구한다. 도시 정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 사회 운동은 잉여 자본의 생산과 활용, 순환에 대한 민주적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다) 도시의 개혁과 관련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가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 거주자들 모두가 도시 공간의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도시의 공적 요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는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들 간에 상호 작용과 갈등이 발생하는 공적인 장소이므로, 안전, 평화로운 공존, 집단적 발전, 연대를 위한 조건들을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와 노동 계급을 동일시하는 이론가들은 오직 노동 계급

만이 도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동하는 사회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와의 투쟁에 주목하고, 현대 도시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인종주의, 가부장주의, 성차별주의 등 온갖 차별적 관행들을 간과한다. 그러나 거주자 개념은 특정한 사회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상이한 정체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주체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거주자들은 정치적 주변화(周邊化)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회적·공간적인 구조들과 투쟁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도시의 여러 구조들 중 하나일 뿐이다.

거주 체험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 역동적으로 형성되므로 거주자의 정치적 의제는 미리 정해질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집단의 규모, 정체성, 그리고 차이에 기초한 집단 간의 복합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여기에는 참여의 권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도시 공간의 구성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거주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도시 공간을 구성하며, 그 필요가 무엇인지도 정치적인 투쟁과 조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거주자들은 도시 공간을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컨대 그들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여성의 완전한 접근권과 안전한 이동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거주자들은 성적 소수자들의 거주 공간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데 저항할 수도 있다. 도시의 거주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제 역시 다양한 정치적 관계를 통해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도시 공간들을 구성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간들은 하나의 도시를 이루어 도시 거주자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